

‘디자인이 있는 도시’ 시민들 눈 땀

25만명 관람 대성황속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 공공디자인 가능성 보여준 이번폴리 도심 명소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23일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폐막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14면> 44개국 129명의 작가와 74개 기업이 참가, 140여점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25만7000여명의 관객이 다녀갔고, 도심 곳곳에 세워진 이번 폴리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도가도 비상도(圖可圖非常圖)’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상품이

전 디자인의 모습과 디자인이 우리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송효상 예술총감독의 발언처럼 기존 디자인의 개념을 확장시킨 프로젝트로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전시작 중 많은 작품이 삶의 터전은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화두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

한 도시개발과 에너지 문제 등 환경과 관련된 작품들은 향후 광주시 등 국내 각 지역의 도시 설계와 관련해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계층간의 불화, 슬럼화의 문제를 도시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준 콜롬비아 작가 세르지오 파하르도 발레라마의 ‘메데인, 두려움에서 희망으로’는 공공 디자인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또 기계

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적 디자인을 선보인 ‘바이크 행어’ 테라노바의 ‘남극 교향곡’, ‘부유하는 가든’ 등은 도시환경 문제와 그린시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거대한 랜드마크를 비롯한 상징물만 넘쳐나는 도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 것도 이번 전시의 매력이었다. 이번폴리 역시 새로운 도시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준 프로젝트였다. 도미니크 페로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금남로 공원 등에 설치한 이번폴리는 광주 도시에 새로운 이미지를 심었다. 특히 광주시가 향후 10년간 100여 개의 폴리를 세우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 설치

된 폴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준비가 뒷받침하는 지적이다. 송효상 감독은 이번 비엔날레가 도시 설계와 관련해 단진 화두를 ‘윤리’와 ‘관계(이야기)’라고 답했다. 무분별한 개발에 주목하고 미학만 쫓던 서양식 도시 개발 모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송감독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관계, 건물과 자연의 관계, 건물과 인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야기가 가득한 도시가 진짜 도시고, 모든 걸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새로 짓는 방법으로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2일 '2011 담양 수목길 걷기대회'에 참가한 2000여명의 시·도민들이 담양 추성경기장을 출발해~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금월교~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이르는 총 5km 구간의 오방길 1코스 수목길을 걷고 있다. 참가자들은 울긋불긋 수채화로 물든 수목길을 걸으며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 관련기사·화보 12면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F1 효과 10~20년 후 내다봐야”

임태희 대통령실장 “경기장 건설 등 초창기 적자 불가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F1 대회(포틀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관련, “1~2년의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10~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지난 20일 광주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 난해와 올해 치러진 F1 대회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했지만 이는 경기장 건설 비용 등 불가피한 측면도 크다”고 지적한 뒤 “F1의 인기가 크게 확

산되는 추세인데다 F2, F3 대회 등 각종 자동차 대회를 개최한다면 적자 폭은 점차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실장은 “F1 대회의 효과를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며 “F1 대회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관광, 레저 산업을 연계 발전시킨다면 전남의 미래가 크게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0~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F1 대회를 바라보고 전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며 “올림픽, 월드컵, 국제육상대회 등도 실질적으로 많은 적자가 났지만 대회 개최 효과는 적자 폭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덧붙였다. F1 대회 지원에 미온적인 정부 입장도 관련, 임 실장은 “그동안 F1 대회 운영에 민간 단체가 얽혀 있어 국고 지원에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그러한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F1 대회에 대해 관심이 높다”며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여수에서 열린 전라선 복선 전철 개통식에 이어 F1 경기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이동 수단이 여의치 않은데다 일정이 겹쳐 무산됐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F1 대회 운영비(300억원)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F1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여론의 대표적인 ‘호남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태희기자 tuim@kwangju.co.kr

세번째 여성 대법관 순천출신 박보영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씨와 함께 임명제청

순천 출신 박보영 변호사(사진)가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관련기사 7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박보영(50·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김용덕(54·12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들은 내달 20일 퇴임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박 후보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임하게 되면 김영란(55·11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전수안(59·8기) 대법관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특히 지난 2003년 8월부터 4년간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순천 출신 여성 법조인 전효숙(60)씨에 이어 또 다

시 박 변호사가 대법관에 내정됐다 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향인 순천 지역민들은 한껏 고조된 분위기다. 순천 출신으로 전주주고, 한양대 법대를 나온 박 후보자는 1987년 법관으로 임용돼 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공익 활동을 해 오다 올해 1월 여성변호사회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민사지법·고법 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지난 2월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됐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jy@

‘문화나무 상상강좌’ 제9탄 ‘세계의 마음을 두드린 난타’

“어릴때 본 공연이 ‘난타’ 성공의 밑거름 국산 창작 뮤지컬로 브로드웨이 가고파”

- 송승환 PMC 프로덕션대표·성신여대음향문화예술 대학장
- 27일(목요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 문의: 062-670-7423, 062-220-0651

光州日報社·광주문화재단



행복한 미소 해피니스컨트리클럽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고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해피니스CC가 회원님을 모십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님의 시간까지 책임지는 해피니스CC회원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모집기간: 2011년 10월 10일 ~ 12월 31일
● 클럽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 입회금액: 3억 3,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월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
※ 개역시: 정회원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한남시: 모든 특전

휴먼 정회원
▶ 입회금액: 1억 5,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무기명카드 2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70회 사용, 1일 1회 사용)
※ 개역시: 정회원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한남시: 모든 특전

주중 / 평일 정회원
▶ 입회금액: 3,300만원(신속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할인

※ VIP회원 및 해피·휴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0 / Fax 061)30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2011년 10월 10일 ~ 12월 31일
● 클럽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 입회금액: 3억 3,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월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
※ 개역시: 정회원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한남시: 모든 특전

휴먼 정회원
▶ 입회금액: 1억 5,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무기명카드 2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70회 사용, 1일 1회 사용)
※ 개역시: 정회원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한남시: 모든 특전

주중 / 평일 정회원
▶ 입회금액: 3,300만원(신속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할인

※ VIP회원 및 해피·휴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0 / Fax 061)30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